



4면
미래교육 정책 공유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전북기업 생산품 수출 판로 개척

김관영 도지사 포함
전북도 외교사절단
베트남 K마켓 본사 찾아
농식품 수출 계약 체결

18일 인도네시아 찾아
한인 상의와 협약 예정
국제통상 네트워크 확대

전북기업 생산품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구촌 어디라도 달려가겠다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출길을 넓히는 강력한 세일즈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3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동남아 지역 2개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전북도 외교사절단의 단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도 이날 베트남 K마켓 본사를 찾아가 농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14일 베트남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체인 K마켓 본사를 방문해 K마켓과 농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 업체인 지엠에프(만두)와 고려자연식품(유자차)이 K마켓과 53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K-마켓을 활용한 전북농수산물 수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마켓은 베트남 전역에 123개의 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지난 2017년에는 베트남 100대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한 기업으로 베트남 지역에서 식품에 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단이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전북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세일즈외교를 시작한 13일 베트남 하노이 K마켓 본사를 찾아 고상구 회장과 전북도 농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호수 GMF대표, 고상구 K마켓 회장, 김관영 도지사, 홍성운 고려자연식품 대표)

한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 역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는 K마켓과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정보교환, 유통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 등에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에 방문한 '전북 무역사절단' 상담장을 찾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북 경제를 견인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역사절단에 참여한 10개 기업 중 삼성농원 등 3개 업체가 현지에서 120만 불 수출계약이 성사되는 성과도 거뒀다. 김관영 도지사의 세일즈

외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전북 기업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주베트남 한국 상공인 연합회와 경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전북이 세계 한상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주베트남 한국 상공인 연합회의 지원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문을 연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수출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기업의 크고 작은 애로를 해결하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홍삼제품으로는 처음 베트남에 진출해 박정자에서 기업활동을 펴고 있는 진안당 영농조합의 베트남 판매장도 방문해 외국에서의 경영 상황과 현지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기업지원시책을 구상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18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도 한인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식품의 유통을 맡고 있는 무궁화유봉사(사)도 전북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 공약 정부 차원 지원을”

도, 대통령 직속 균형위 주최 전북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서
전북투자도 출범 지원·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등 강조

전북도는 14일 전주 왕의지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주최로 '전북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오정근 균형위 지역공약특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전북 지역공약 추진상황 점검과 공약 이행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전북도 및 균형위 관계자들과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북도 지역공약 추진현황 설명·청취, 과제별 전문가 주제발표 및 제언 종합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아날 노홍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공약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128년만에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균형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일환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금융기관 전북 우선배치,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선진화와 침체된 전북의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의 국가

사업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전북연구원 김시백 박사를 비롯한 5개 분야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국제태권도사관학교 및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탄소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 방향성과 전북지역 추진 당위성 등을 발표했다.

더불어 전북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약관리 전담기능 강화 및 대규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사업 우선적 예산지원, 부처별 공모사업 시 지역공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건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이다. /김재훈 기자

도, 올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참여 단체 공모

전북도는 민간단체의 물환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강·만경강 수계 1개소 3,000만원, 섬진강 수계 1개소 2,000만원, 동진강 수계 1개소 2,000만원 규모로 총 3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도내 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이다. 각 단체는 전라북도 공모사업 중 총 3개 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도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단체나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단체, 영리단체, 사무실이 없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사업은 물환경 교육, 빗물정원 조성, 환경정화활동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기타 물 문화 육성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전북도 누리집(www.jonbuk.go.kr) 공고/고시에 게시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라북도 청 물통합관리과(10층)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3월 말 전북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홍기 도 물통합관리과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물 관련 교육 및 체험활동 등으로 물환경의 중요성을 고취하는데 있다"며, "물문화 육성을 위해 도내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무궁화 신품종 2종 보호권 획득

새천년·비상 등... 2016년부터 5년간 개발

2021년 국립종자원서 재배시험 거쳐 올해 등록

전북신림환경연구소가 전북 새천년의 비상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무궁화 신품종 '새천년'과 '비상' 두 품종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새천년'과 '비상' 품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의 육종기간을 거쳐 개발했으며, 2021년부터 국립

종자원에서 2년간의 재배시험을 거쳐 올해 신품종으로 등록됐다.

'새천년'은 꽃이 작고 아름다운 백단스럽게 홑꽃으로 종자가 거의 맺히지 않아 깨끗한 관상미를 지녔다. 잎에 털이 거의 없어 피부 접촉시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위



전북신림환경연구소가 2016년부터 5년간 개발한 무궁화 신품종 '새천년' (사진 왼쪽)과 '비상'.

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해 조경 및 문화용으로 가치가 기대된다.



'비상'은 '새천년'과 달리 아삭하게 홑꽃으로 꽃이 크며 종자가 맺히는 차이점이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